

# 전남교육청 어린이집 누리예산 끝내 빠졌다

### 시급한 교육시설 개선 사업 우선...추경안 편성 안해

### 광주교육청도 유치원 예산만...다듬달 보육대란 우려

전남도교육청이 끝내 추가경정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508억원에 달하는 7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할 경우 시급한 교육 시설 개선 사업을 할 수 없어 '교육 대란'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교육청도 오는 정기회(6월 1~13일) 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 유치원 예산(550억원)만 세우기로 방침을 세웠다. '보육 대란'이 불가피하지만 '교육 대란'으로 번지게 할 수 없다는 게 양 교육

청 입장이다. 더이상 아이들과 부모들을 불모로 '폭탄 돌리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전향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17일부터 열리는 제305회 임시회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508억)을 제외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한다.

전체 1359억원 규모의 예산안에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96억5000만원 ▲학교교실 및 시설사업비 78억5000만원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15억8000만원 ▲선상

무지개학교 6억 ▲남은 교실 증축 22억 ▲오래된 기숙사 증축 및 보수 42억7000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어린이집 예산을 책정할 경우 교육 시설 개선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 예산 편성이라는 게 전남도교육청 입장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시급한 교육 시설 개선에 들어갈 비용이 워낙 많아 어린이집 예산을 세우기가 불가능하다"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입장을 설명했다.

전남도의회도 재정 행편을 들어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무작정 요구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도 비슷하다. 오는 6월 1일 임시회에 맞춰 시의회에 제출할 추가경

정예산안에는 9개월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550억원)만 담길 예정이다.

광주시도 5월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계획하고 있어 6월 이후로는 '보육 대란'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교육청이 주지 않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대신 편성하면서 교육청에 보내야 할 법정 전출금을 일정 금액만큼 '담보' 형태로 유보한 채 지급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을 활용, 누리과정 예산 등 핵심 교육 현안을 해결하려는 교육청과 정치권 움직임도 별다른 소득을 내지 못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언제까지 누리과정 지원비 때문에 애를 태워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대우일렉 인수 자금 수사 동부증권 사장 출석 통보

검찰이 광주에 생산공장을 둔 동부그룹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자금'과 관련해 고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2013년 동부그룹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와 관련해 고발된 고원종 동부증권 사장에게 17일 출석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고 사장은 2013년 동부그룹이 대우일렉을 인수할 때 동부증권 자금 700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말 고발됐다. 인수 당시 투자자 중 한 명인 이모씨는 김준기 회장과 고 대표 등이 동부증권 회삿돈 700억원을 유용해 일부 재무적 투자자에 자금을 대줘 위장 인수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동부그룹이 대우일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동부증권을 통해 자금을 우회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



**쪽진머리하고 '성년의 날' 계례식** 16일 성년의 날을 맞아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학교 해오름관에서 쪽진 모습을 하고 전통성년의식인 계례식을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경찰 '친부 살해 남매' 수사력 한계

### 범행 동기도 못밝힌 채 오늘 송치...증거수집도 오락가락

어머니를 친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경찰은 남매의 자백과 범행 동기를 밝히기는커녕 수사와 증거물 수집 과정에서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다.

수집 과정에서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다. 수시한 채 현장증거마저 극비리에 진행되고, 사건을 돌린 비공개 수사로 전환했다.

광주북부경찰청은 16일 '어머니날 아버지 문모(76)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된 딸(47)과 아들(43)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17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남매를 긴급체포해 일주일 동안 수사를 진행했지만 '아버지를

죽였다'는 자백을 받아내지도, 범행 동기를 밝히지도 못했다.

북부경찰청은 지난 3월 발생한 '캐나인 PC방 입주 살인 사건'에서도 범행동기를 밝히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문씨 아파트 CCTV에 찍힌 남매의 영상 등 정황증거만으로도 존속살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남매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 유류품을 찾지 못했고, 또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 10여점에 대한 구입경로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북부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당초 "도막 살인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가 "증거물 수집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며 오락가

락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피해자 문씨의 통장 등 추가 증거물을 검거 5일 뒤 지난 14일 현장검증 과정에서야 부랴부랴 챙기기도 했다.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미다.

또 경찰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의식해 비밀리에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마저도 CCTV영상을 토대로 진행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패륜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 현장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사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정 수사방향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해왔다.

갑작스런 비밀수사 전환도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비밀수사 전환은 '국민 여론을 고려해 사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라'는 경찰 본청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광주경찰청이 지역 이미지 악화를 우려해 지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경연기자 kki@kwangju.co.kr

## 동료 선원 살해 50대 영장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16일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 흥기를 휘둘러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차모(54)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5일 밤 11시50분께 신안군 지도 송도 앞 해상에서 피항 중이던 어선에서 동료선원 김모(4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차씨는 선내 침실에서 동료선원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김씨가 다른 선원과 싸움을 벌였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욕을 하며 따지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7 해질 19:31 달돋이 15:20 달질 02:57

**식중독 주의하세요**  
고기업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11/28	보성	맑음	7/26
목포	맑음	12/24	순천	맑음	11/28
여수	맑음	14/25	영광	맑음	9/25
나주	맑음	8/28	진도	맑음	9/24
완도	맑음	12/25	전주	맑음	11/27
구례	맑음	8/28	군산	맑음	11/23
강진	맑음	8/26	남원	맑음	7/28
해남	맑음	7/26	홍산도	맑음	13/20
장성	맑음	8/2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안바다	남서~서	0.5~1.0	남서~서	0.5
남부	안바다	남서~서	0.5~1.5	남서~서	0.5~1.5
남해	안바다	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서부	안바다(동)	서~북서	0.5~1.5	서~북서	0.5~1.5
서부	안바다(서)	서~북서	1.0~1.5	북서~북	0.5~1.0

**◇물때**

		밀물	썰물
목포	11:15	04:24	
	23:56	16:51	
여수	06:15	00:04	
	10:00	12:29	

**◇주간 날씨**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	☀	☀	☀	☀	☀	☀
14/29	15/29	15/29	15/28	16/25	16/25	16/26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자외선 높음
- 미세먼지 보통

## '공천 헌금' 박준영 영장 청구

20대 총선 당선인 중 처음

수역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영암·무안·신안)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20대 총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영단 방침을 밝힌 뒤 나온 첫 영장 청구 사례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당선인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씨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씨

를 구속 기소했으며, 공천 헌금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53)씨도 구속했다.

공천 헌금 혐의 이외에도 박 당선인 측이 4·13총선 선거운동 중 선거법을 위반해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적발해 회계책임자 김모(51)씨와 정모(58)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감추거나 인멸하려는 정황을 포착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 흥친 휴대전화로 100만원 소액결제... "벌금 300만원 물어라"

흥친 남의 휴대전화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소액결제를 통해 10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과 콘텐츠를 구입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 을 선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는 지난해 8월2일 새벽 2시58분께 광주시 동구 조선대병원 병실에서 흥친 A씨의 휴대전화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소액결제 방식으로 28회에 걸쳐 50만원 상

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고 같은 해 8월 10일 새벽 4시14분께 첨단종합병원 병실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같은 방법으로 50만원 상당의 콘텐츠를 구입했다는 것.

○광주지법 노호성 판사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관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편취한 금액이 100만원으로 소액이고 이를 전액 변제공탁한 점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년 노하우**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 (주)**  
고객 맞춤형 투자 추천!! 전지역 부동산 신속한 책임중개상담  
경, 공매 NPL 컨설팅 전문업체

**경매 추천물건**

- ★ 광주 동구 동명동 대지 700㎡ 건물 2005㎡ ▶ 감평가 19억 5천 8백만원 최저가 13억 7천만원 1층수퍼 2~8층오피스텔 푸른길인근
- ★ 광주 남구 주월동 6층상가 대지 342㎡ 건물 1,259㎡ ▶ 감평가 7억 9천 6백만원 최저가 7억 9천 6백만원 초등학교와 학원건물
- ★ 전남 나주시 경현동 한수저수지 금성산입구 3층 연수원건물대지 1488㎡ 건물 2075㎡ ▶ 감평가 30억 6천 5백 최저가 7억 3백
-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신북농공단지 현 오리가공공장 대지 3,197㎡ 건물 2349㎡ ▶ 감평가 14억 최저가 6억 2천 7백만원
- ★ 전남 화순군 동면 서성리 저수지 앞 전원주택단지 토지 554㎡ ▶ 감평가 1억 1천 최저가 6천 2백만원 지대높음 전망좋은
- ★ 전북 순창군 북흥면 대방리 2층 전원주택 대지 698㎡ 건물 230㎡ ▶ 감평가 1억 3천 1백만원 최저가 9천 1백만원 신축건물
- ★ 광주 북구 매곡동 4층상가 대지 739㎡ 건물 1,261㎡ ▶ 감평가 12억 1천 6백 최저가 8억 5천 1백만원 학원 식당 운영중
- ★ 광주 북구 신안동 1층상가 3개 2층 사무실 대지 210㎡ 건물 152㎡ ▶ 감평가 1억 8천 6백만원 최저가 1억 8천 6백만원 도로변

**공매 추천물건**

- ★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계획관리지역 10,706㎡ 무안공항인근 펜션 부지 적합 바다 조망 ▶ 감평가 915백만원 최저가 915백만원
- ★ 전남 화순군 도곡면 호산리 면사무소 인근 담 473㎡ ▶ 감평가 29백만원 최저가 29백만원 계획관리지역 도로변
- ★ 광주 서구 금호동 시영아파트 뒤편 창고 대지 350㎡ 건물 177㎡ ▶ 감평가 240백만원 최저가 240백만원

**투자추천 일반매매**

- ★ 광주 북구 운암동 대지 469㎡ 건물 1781㎡ 지하층~지상5층 대로변 준주거지역 ▶ 매매 15억 (용7억 4천 포함)
- ★ 광주 동구 지산동 대지 298㎡ 건물 1,088㎡ 원룸18개 투룸6개 스킨룸6개 (용4억 5천 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 옆 ▶ 매매 13억 5천
- ★ 광주 남구 주월동 단층 상가 대지 675㎡ 남구청 옆 일반상업지구 투자적합 고층건물 건축가능 ▶ 매매 24억원
- ★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명지원 옆 중심상권 상가건물 대지 496㎡ ▶ 매매 40억 (보증금 2억 3천, 월2천7백)
- ★ 광주 북구 유동 오리탕거리인근 대지 422㎡ 6층 모텔 객실28개 최신리모델링 ▶ 매매 8억 (용4억 8천 추가 3억 3천대출가능)
- ★ 광주 광산구 월계동 승덕고인근 대지 222㎡ 건물 400㎡ 원룸15개 안집방3개 ▶ 매매 6억 3천 대출 2억 포함 보증금 4천 월세 5백
- ★ 주월동 하이마트 인근 대지 661㎡ 현 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 매매 13억원
-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 28세대 가능 광주수익형 상가 교환가능

**수익형 일반매매**

- ★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역부근 근린시설용지 기업은행뒤편 대지 479㎡ ▶ 매매 5억 8천 (조정가)
- ★ 광주 동구 학동 일반상업지구 대지 195㎡ 웰빙건강랜드부근 ▶ 매매 2억 2천만 (조정가) 현 주차장이용
- ★ 광주 서구 화정동 6층 모텔유흥 대지 416㎡ 건물 2,000㎡ 터미널 뒤편 객실 20개 상가 4개 고수익물 ▶ 매매 27억 (용13억 포함)
- ★ 광주 광산구 우산동 80미터 도로변 3층무인텔 대지 2,372㎡ 건물 2,760㎡ 객실 36개 ▶ 매매 58억 (용 28억 포함), 수익성 월 8천정도로

**20년경력 010-6211-4585 조해원 / 직원모집 초보환영 / 공인중개사 010-6838-6008 강천구**